

2022년 제 2 회 세계 성균관글백일장

소속교: 연세대학교

한글 성명: 김소정

유교에서 보는 "나눔"

"나눔"이란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것을 누구랑 공유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.

"나눔" 정신 덕분에, 우리 인류는 서로 ^{협력}한 자원들을 ^{누려} 나^{누려} 멸악한 환경 속에서 지구를까지 생존했다고 믿는다. "나눔"은 옛날부터 내려온 미덕이라고 본다. "나눔"을 복면서, 유교의 "인의예지신"이 떠올랐다. "나눔"도 역시 성인이 중요시 간주하는 미덕이다.

"나눔"은 "인"의 ^{정신} 선의가 담겨 있다. 우리는 "나눔"을 통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. 스승은 제자에게 평생의 지식을 나눈다. 조선 시대 대화^가인 김홍도와 신윤복이 떠올랐다. 역사에서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라는 추억만 있을 뿐, K드라마 "바람의 화원"에서는 두 사람의 "나눔"의 미담을 담았다. 스승 김홍도는 조선에 최고의 그림 기술의 갖고 있어도 아낌없이 비법과 소감을 아끼는 제자 신윤복에게 나눈다.

2022년 제 2 회 세계 성균관글백일장

소속교: 연세대학교

한글 성명: 김소정

제자 또한 스승에게 창신적이며 파격적인
 독특한 생각들을 스승과 공유한다. "나눔"
 은 경쟁이 아니다. 하지만 두 분은 자
 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교류하는
 동시에, 서로에게도 제일 강한 라이벌이
 됐다. 조선의 풍습화도 두 사람 덕분에
 봄이 찾아왔다. 서로가 더 잘 되기
 위해 ~~선악의~~^{착한} "나눔", 나는 이를 유교의
 "인"과 부합된다고 생각한다.
 '나눔'은 '의'이다. "나눔"을 생각하면 도움
 이 필요한 사람 ~~에게~~ 또는 궁지에 빠진
 친구를 구하는 의기적인 이미지가 떠올
 른다. 그래서 나는 "나눔"은 "의"를 가진
 기부"라고 생각한다. 나는 비록 부유하지
 않아도, 자연재해 때 문에 집이 없어진 사
 람들에게 기부한다. 친구가 도움이 필요
 한데, 나도 비록 더 좋은 지경은 아니
 여도 내가 갖^은 무엇을 나누면서 곤란
 을 감이 극복 하려고 노력한다. "의"의
 정신이 담은 "나눔"은 "성김"이다.

2022년 제 2 회 세계 성균관글백일장

소속교: 연세대학교

한글 성명: 김소정

"나눔"도 "예"가 될 수 있다. 앞서 말한
 선의를 배포하는 "선"의 나눔, 또는 "의리"
 의 "나눔"을 받았을 때, 우리 또한 예절을
 지켜 상대방에게 "나눠"야 맞다. 이는 인
 간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매우
 중요하다. 당연히 "나눔"의 목적은 상대방
 에서 보상이나 은혜를 갚는 것을 위한
 것은 아니다. 다만 누군가에게서 상
~~대방의~~ 좋은 것을 본다면, ~~예절~~ ^{예의 상무로도} ~~목적으로~~
 당연히 "나눔"을 해야 좋을 것이라는 말이다. 옛
 날부터 우리는 "나눔"이 나는 정신 덕분
 에 서로에게 동등한 예절을 갖추는 법
 을 알았다. 또는 누군가 "나눔"을 할 때
 "나눔"은 그러므로 "신"과 가깝다. "신"은
 만~~한~~ "신용"이다. "나눔"과 얼핏 보면 연관이
 없어 보이지만, "예"와 연결하면 된다. "나
 눔"은 목적이 없이 상대방에게 좋은 것
 을 공유하고 싶은 것이다. 그러나 남이
 준 "나눔"을 아끼지 ~~않고~~ ^{자나} 자기 의 이익을
 위해 악용하는 것은 "신용"이 없다고 본

예절을
 지키며 상대
 공손해야
 한다
 한다
 존중해야
 한다.

2022년 제 2 회 세계 성균관글백일장

소속교: 연세대학교

한글 성명: 김소정

수 ^있 다 고 생 각 한 다 . 우 리 는 신 인 들 이
 오 랜 세 월 간 모 아 놓 은 경 험 을 기 반 하 여
 지 금 의 성 과 를 도 출 할 수 있 었 던 것 이
 다 . 개 인 의 어 깨 위 에 서 있 었 기 때 문 에
 멀 리 볼 수 있 었 던 것 이 다 . 그 래 서 나
 는 교 육 ^위 제 일 대 표 적 인 지 혜 의 "나눔"
 이 라 고 분 다 ^{카라의 독답} 나 는 아 이 디 어 하 나 를 갖
 고 있 다 . 너 도 아 이 디 어 하 나 를 갖 고
 있 다 , 우 리 가 나 누 면 두 개 의 아 이 디 어 를
 갖 을 수 있 다 " . 역 시 서 망 에 서 도 유 고
 사 상 처 럼 "나눔"의 정 신 을 영 인 정 한 다 .
 "나눔"은 진 정 하 게 유 고 의 "인 의 예 지 신"
 을 잘 나 타 낸 단 어 라 고 할 수 있 다 .
 "나눔"을 통 해 우 리 는 남 에 게 선 의 를
 전 달 하 고 , 또 한 누 군 가 에 게 선 의 를 받
 을 수 있 는 아 름 다 운 행 위 라 고 생 각 한
 다 . 선 의 , 의 리 , 메 절 , 지 혜 또 는 신 봉 을
 답 아 우 리 에 게 항 상 "나눔" 정 신 을 갖 고
^{살아라} ~~과 하~~ 는 종 은 가 르 침 이 다 . ^{모후카} ~~우 리~~ 기 뵈
 과 행 복 을 나 누 면 , 더 많 은 기 뵈 라 행

2022년 제 2 회 세 계 성균한글백일장

소속교: 연세대학교

한글 성명: 김소정

복	을		만	을		수		있	어	모	는		있		다		고		믿		는		다	.
---	---	--	---	---	--	---	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	---	--	---	--	---	--	---	--	---	--	---	---